

“피땀 흘려 농사 지으면 뭐하나...빛만 쏘이고 답답”

쌀값 폭락에 눈물 짓는 농심...영광·광주 농민들 얘기 들어보니

인건비·유류비·비료값 치솟는데 쌀값만 폭락...정부 대책도 없어
“빛내서 콤바인 구입했는데 추수 해도 남는게 없어” 들녘엔 한숨만

“피땀흘려 1년 동안 열심히 벼를 키우면 뭐하니
까. 쌀값이 꺾였어. 그래서 이대로면 추수를 해도 남는
게 없게 생겼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에 쌀인 빛도
값이야 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없으니 답
답한 심정이지요.”

지난 16일 영광군 백수읍에서 20년째 귀농생활
을 하며 벼농사를 짓고 있는 양이현(59)씨는 300
마지기(약 20만㎡) 땅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벼를
보면서도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달 10일이면
추수를 시작해야 하는데 20kg 들이 1포대 쌀 가격
이 4만원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

최근 쌀 가격이 수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추수를 앞둔 광주·전남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가피한 인건비, 비료값 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데
비해 정작 추수입원인 쌀값은 폭락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통계에 따르면 20kg 들이 1포대 쌀(상품·정곡) 도
매 가격은 지난해 9월 5만 7387원에서 올 9월 4만
6320원으로 19.3% 급감했다.

반면 농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증가했다. 비료값
(요소)은 20kg 1포대 기준 가격이 지난해 1만
2000원대에서 2만 8500원대까지 2배 이상 뛰었

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농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따지더라도 9000원대에서 1만 4000원으로
55% 넘게 급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도 일당 8~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올랐으며, 경
유 등 면세유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ℓ당 8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폭등한 실정이다.

양씨는 “높은 물가 때문에 경비를 아끼려고 노동
자를 한 명이라도 덜 쓰고 비료도 두 배 할 것 한번
만 치는 등 아껴 봤지만 지난해보다 경비가 40~
50% 더 들어간 상황이다”며 “농민들의 한 해 급여
나 다름없는 쌀값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허탈하기
만 하다”고 말했다.

광주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6일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 일대에서는 푸른 빛의 벼에 노란 낱알이 속
속 들어차고 있었다. 인근 농민들은 9월 말경 수확
을 시작할 때쯤이면 벼들이 완연한 황금색으로 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밭 디딜 틈 없이 자라난 벼
들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곳에서 25년 농사를 지었다는 오찬석(65)씨
는 “쌀값은 떨어지는데 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
든 것의 가격이 올랐다. 올해는 어떻게 넘긴다고 해
도 내년에 쌀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앞으
로가 더 걱정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기연(65)씨 또한



추수를 앞둔 16일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익어가는 벼를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작년에 대출을 받아 농기계 콤바인을 약 9500만원
에 구입했는데 속절없이 쌀값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잡도 오지 않는다”며 “올해 쌀값이 이만큼 떨어질
줄 알았다면 빛내서 콤바인을 구입하진 않았을 것”
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
다. 지난 15일 전국 8개 도지사들은 쌀값 안정 대책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도 지난해 비축미가 시장에서 제대로 격리
되지 않은 점을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꼽고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이후 초과 생산된
쌀 27만 t을 12월까지 제대로 시장에서 격리하지
못해 쌀값 폭락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오씨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없
다”며 “이미 지난해 쌀이 초과생산됐는데 정부는 양
곡수매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손을 놓은 모양새다.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양씨 또한 “정부에서 농민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농민 탓’만 해 왔다. 해가 갈수록 쌀 수요가 줄어드
는데 괜히 쌀 농사만 많이 지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는 식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농민들의 타격은 끝이 없을 것”이
라고 밝혔다.

/영광·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진돗개 구조했는데... 무단 반출 고소?

식용전에 섞여 사육 4마리 구조
진도군 고발에 동물단체 맞대응

진도군이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를 구조한 동
물단체를 ‘무단반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동
물보호단체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문화재보
호법(무단반출)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라
이프 심인섭 대표가 소재지인 부산경찰에서 조
사를 받았다.

진도군이 심 대표를 지난해 8월 진도군의 한
개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던 65마리의 개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 4마
리를 진돗개보호구역에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라이프 측은 “구조 과정에서 진도군에 개와 농
장주를 격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고 보다
못해 2000만원을 들여 농장주로부터 개 65마리를
전부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조하는 협상 현장에도
진도군 관계자가 있었다”며 “모든 과정을 아는 진

도군이 고발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문화재청을 통해 65마리 중 한
마리가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임을 파악
했고 한 달여 뒤 위탁보호소에서 추가로 세 마리
가 더 진돗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도군은 단체에게 진돗개를 돌려달라
고 지난해부터 유선상으로 요구 한 뒤 올해 초
공문을 통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단체는 받아들
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 진돗개를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
서는 반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구조
된 진돗개 사육환경 개선과 입양 홍보 방안 ▲문제
제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진돗개 4마리의 보호·치
료 비용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3월 말 진도군은 단체를 진도경찰
에 고소했다. 천연기념물을 문화재청장의 허가
를 받지 않고 ‘진돗개 보호지구’인 진도 밖으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심인섭 대표는 “진도군청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할 방침이며, 항
후 민사 부분까지 법적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여수경찰서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 구속

전남경찰, 감찰 착수

경찰 압송과정에서 도주했다 하루만에 다시 붙
잡힌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은
압송과정에서 경찰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
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
유경 판사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와 도주 혐의 등으로 A씨
(2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수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 청소년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지난 14일
긴급체포돼 여수경찰로 이송됐다.

이날 밤 11시 50분께 여수경찰서 주차장에 도착

한 A씨는 경찰관 3명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15일 밤 9시 20분께 인천
시 서부구의 한 카페에서 다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도주 4분 만에 지나가는 오토
바이를 잡아타고 달아났고, 4시간 뒤에는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여수를 빠져나간 것으
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지인들에 대해서도 도주방
조죄 혐의 등을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지만 지인들
은 “도주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에서는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난 경위,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해 감찰
조사가 들어갔다. /정병호 기자 jusbh@

화순·완도서 교통사고 2명 사망

주말 사이 전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다.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밤 11시께 화
순군 도곡면 편도 1차로에서 포르테 승용차가 가
로수를 들이받은후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36)씨가 심경지 상태로 인

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차량에 붙
은 불은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완도군 고금
면 편도 1차로에서 1t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
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72)씨가 숨
지고 운전자 C(51)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돈도 안 주고 골프공 가져가” 삽 휘두른 70대 징역 7년 선고

돈도 안 주고 골프공을 가져간다는 삽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판사 박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곡성군 자신의
집에서 B(61)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삽으
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장 주변에서 로스트볼(골프 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을 주워 판매
해온 A씨는 이날 B씨와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중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골프공을 가져가려
하자 “저번에 가져간 공 값도 주지 않고 왜 또 가지
고 가는냐”며 싸웠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자 A씨는 화를 참
지 못하고 창고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
리 부분을 5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거동이 불편해 입으로 음식을 씹어 삼키지 못하는
등 평생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